

검찰 직권 5·18 피해자 재심 청구 주목

검찰개혁위, 억울한 옥살이 재심 청구 권고

공소유지 변호사제 도입·상고심위 설치도

검찰이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해 폭도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의 무죄를 밝혀줄 방안을 찾는 지 주목된다. 헌법상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재심을 청구해야 무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26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되는데도 재심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하는 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 제4조(특별재심) 1항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재심은 당사자(가족)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은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찾아내 재심을 청구하는 능동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18기념재단 5·18외국대책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 강행욱(전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변호사는 권고안에 따르면 5·18 피해자들이 재심 절차를 몰랐거나 부상 후 사망,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5·18 당시 상무대 영정에 끌려가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약 900명인 것으로 봤을 때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행방불명이나 가족이 없었던 피해자들이 지금이라도 결백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이날 또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유지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한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직접 법원에 기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경우에도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고 있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검찰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개혁위가 문 총장에게 권고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는 검찰 대신 변호사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기존 재정신청 제도는 고소 사건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르는 ‘독직’ 행위 사건을 고발한 일부 사건에만 시행됐다. 이를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혁위는 권고안에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 방안도 담겼다. 하급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할 때 검찰이 신중을 기하도록하겠다는 취지다.

과거사 사건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 빠른 배상이 이뤄지도록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여기에 맞춰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의 도입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 17:28
달출몰 13:07 달몰 00:46

기온 '뚝'

찬 공기가 남하 하면서 28일 오전까지 춥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5/3	보성	맑음	-6/2
목포	맑음	-3/3	순천	맑음	-7/4
여수	맑음	-4/4	영광	맑음	-7/1
나주	맑음	-7/3	진도	맑음	-4/4
완도	맑음	-3/4	전주	맑음	-6/2
구례	맑음	-8/3	군산	맑음	-6/2
강진	맑음	-5/4	남원	맑음	-7/2
해남	맑음	-6/3	축산도	맑음	0/4
장성	맑음	-7/2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5	서~북서	0.5~1.0
	면바다	북서~북	1.5~3.0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0.5~1.5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생활지수

매우높음	☀
높음	☁
매우높음	☁
감기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04	08:04	13:22	20:28
여수	08:59	03:12	22:10	15:33

◇주간 날씨

28(목)	29(금)	30(토)	31(일)	1/1(월)	2(화)	3(수)
☀	☁	☁	☀	☁	☁	☁
-4/8	0/10	5/10	2/6	-1/4	-2/5	-3/6



“평화 올림픽 기원합니다” 평화 올림픽을 위한 각계 원로 기자회견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희중(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설정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평화올림픽을 기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교사도 교장 되는 ‘교장 공모제’ 내년부터 확대

교육부 15% 제한 규정 없애 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 가능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학교 구성원의 평가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가 내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는 지금껏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26일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원 문화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

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됐다.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 신장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모학교 1792곳에 임용된 교장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

지자는 89명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할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 시행령은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교원·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에는 익명으로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제공해 교장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심사가 끝난 뒤 학교심사위원회와 교육정책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저소득층 ‘메디컬 푸어’ 막는다

재난적의료비 연 최대 2천만원

정부는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지원액 역시 평생 최대 2000만원이었다가 연간 최대 2000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

/연합뉴스

광주 비리 서기관·사무관 9명 좌천

교육청 411명 승진·전보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승진·전보 등 4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는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진 관급 자재 납품비리 브로커와 친목모임을 가졌던 서기관·사무관 등 9명이 사실상 좌천인사를 당한 점이 특징이다.

이정원 금호평생교육관장 공로연수와 노영기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등 명예퇴직으로 지방서기관 4명, 행정5급 승진 8명, 보진5급 승진 1명, 6급 승진 26명, 7급 승진 33명 등 총 81명이

승진했다.<인사 명단 22면>

나중훈 총무과장은 부이사관급인 금호평생교육관장 직무대리로 임명됐으며, 정영국 총무과 인사담당은 서기관으로 승진해 정책기획관 사학정책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양춘 정책기획관 사학정책담당이 공모담당관, 양주승 광주시교육정보원 총무부장이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운용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이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 임명됐다.

박치홍 공모담당관은 행정국 총무과장으로 발령되는 등 5급 이상 44명, 6급 이하 208명이 자리를 옮겼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산강 복원 시민 역량 모아야”

시민행동 워크숍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물관리 정책 수립·시행·평가 과정에 정부뿐 아니라 시민, 환경단체(NGO),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6일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영산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지현 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 구성과 향후 계획’, 박철웅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을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참여 단체를 확대하고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사, 시민담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와 든든한 미래를 위한 약속

회원의 소중한 꿈이 담긴 자산
MG금남새마을금고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정기에탁금
1년 최고 **2.4%**

정기적금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

2017년 한 해 동안 금남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지향하며 고객 여러분의 꿈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